

# 진보적 지식인의 '反진보적인' 시각

「책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를 읽고

송우혜

소설가

백년 전, 이 땅에 한 미국 신문기자가 찾아왔다. 불우하게 태어나 사회의 밑바닥을 전전하면서 잡초처럼 자라서 약관의 나이에 유명한 작가가 저널리스트가 된 그 사내, 바로 「야성이 부르는 소리」를 비롯하여 계급의식이 밴 진보주의 성향의 「강철 군화」 등의 독특한 저서들로 세계문학사에서 자신만의 고유영역을 구축한 작가 책 런던이다.

책 런던이 당년 29세의 혈기왕성한 기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은 1904년 2월. 그간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이 세계에 자자하게 퍼졌던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에 종군하고자 한 것이었다. 예상대로 러일전쟁은 우리 땅에서 전단(戰端)을 열었고, 책 런던은 당시 북상하는 일본군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집요하게 전투 현장을 찾았다. 그의 발걸음은 평양과 의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기까지 했다.

당시 서구의 매스컴에 보도되었던 그의 종군기자들이 1982년에 프랑스에서 한 권의 책으로 묶여나왔고, 그 책이 이제 다시 우리말로 옮겨져서 「책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윤미기 옮김, 한울)라는 제목 아래 세상에 나왔다.

## 공공연히 드러내는 경멸감과 냉소

책 런던의 눈에 비친 러일전쟁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으며, 조선과 조선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책을 손에 들면서, 책 런던이 지닌 그 화려한 명성의 비중에 못지 않은 크기의 반가움과 호기심이 있다.

그러나 막상 「책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를 읽고난 감회는 야릇하다. 뒤에서 낯선 사람이 괜히 눈을 흘기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쇄국정책으로 오랜 세월 나라의 문을 닫고 있던 조선조에서 19세기 말에 비로소 개항으로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 우리나라를 보고 간 외국인들은 여럿이다. 그들은 대개 그들이 보고 들은 조선에 관한 기록들을 남겼는데, 특히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러일전쟁 당시 취재차 조선에 입국했던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쓴 기록 중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지 오래 유명한 책들이 있다.

캐나다 출신의 신문기자 매켄지(F. A. McKenzie)가 쓴 「한국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은 현재 우리나라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판을 거듭하며 많이 읽히고 있는 그 방면의 고전이고, 스웨덴 출신의 신문기자 아

손 그레스트가 쓴 「코리아 코리아」 같은 책도 번역되어 우리에게 소개된 지 오래다.

특히 매켄지는 러일전쟁 당시 영국의 「런던 데일리 메일」의 특파원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책 런던과 함께 일본군을 따라 종군했기에, 책 런던의 종군기에도 종종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간 우리나라에서 매켄지의 글은 유명했는데, 매켄지보다 더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작가이며 기자였던 책 런던의 글은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가.

「책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를 읽어보면, 그 해답이 스스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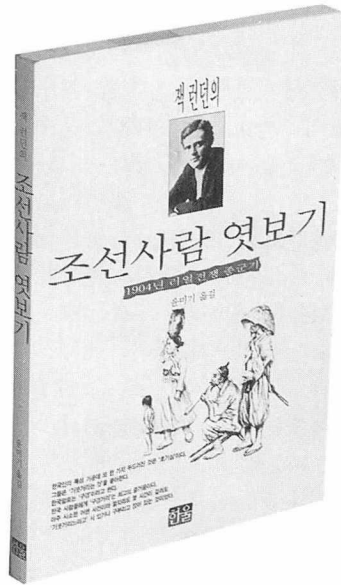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책 런던이 지닌 조선사람들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다. 조선인들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냉담한 관찰자로서, 그는 조선땅을 누비고 다녔고 조선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았고 그가 본 것들을 글로 묘사했다. 당연히 그의 글에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조선인들에 대한 경멸감과 냉소다.

그가 보기에 조선인들은 신체는 멀쩡하고 용모는 번듯하나 정신이 나약하고 무기력해서 일본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종족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강자인 일본인들에게서 당하고 있는 부당한 박해와 굴욕이 조금도 마음에 그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당시 책 런던이 조선인들에 대해 지니고 있던 정서였다. 따라서 “정말로 한국인은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 중에서도 의지와 진취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장 비능률적인 민족이다.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짐을 지는 것이다. 짐 끄는 동물처럼 완벽하게 일을 해낸다”(40쪽)와 같은 방자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과도한 애정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냉소 역시 사물의 진상을 알아보는 것에 방해가 되는 법이다. 그래서 책 런던의 종군기는 비뚤어져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구절을 보자. 러일전쟁 발발 초기 책 런던은 조선에 온 일본군들이 극히 엄정한 군기를 지녔다면, 그것을 찬양하고 강조하는 말은 실로 도가 넘친다.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의 점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었다. ...민간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일본군대를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여자들을 건드리지 않았고 돈도 빼앗지 않았으며 물건들도 약탈하는 법이 없었다.”(32~34쪽)



그러나 막상 일본군들에게 약탈을 당한 한국인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을 기록할 때의 눈조는 다음과 같이 표면한다.

“한국인은 또 다른 불만을 토로한다. 병사들이 닭과 계란을 훔쳐간다는 것이다. 가난한 한국 국민의 형편으로 보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병사들이 있는가? 전쟁이 존재해온 이후로 병사는 닭장을 점령하고 닭과 계란은 병사들의 공공연한 먹거리처럼 간주되어 오지 않았던가? 인간이 전쟁을 일으킬 만큼 비이성적인 한, 병사들의 위장과 사고방식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55쪽)

책 런던이 보이고 있는 이토록 일그러진 판단의 이중잣대를 목격하면, 잠깐 속이 쓰리다. 그런 속쓰림은 같은 특파원 신분으로 러일전쟁에 함께 종군했던 매켄지의 경우와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책 런던의 글 도처에서 드러나는 것이 조선인들에 대한 경멸과 일본인에 대한 찬사라면, 매켄지의 글에 담긴 것은 조선인들에 대한 연민과 일본인들의 부당한 억압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것”이야말로, 러일전쟁 종군기에서 드러나는 책 런던의 정서 그 자체다. 그래서 책 런던은 전쟁의 승자인 일본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잠자는 사자’로 보았던 중국인에 대해서도 호의와 경외감을 감추지 않는다. 오직 조선인들만 경멸스럽고 한심한 존재들로 앞잡아 본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경을 거친 사람들이 곤궁 드러내는 두 가지 패턴 이야기’가 떠오

른다. 예전의 자신처럼 역경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볼 때, 한 부류는 도우려고 하는 반면, 다른 부류는 오히려 더 경멸하고 모질게 발길질을 함으로써 불우한 자들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 놓인 거리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다. 책 런던의 경우 후자에 속함이 분명한데, 사회의 비천한 수렁에서 추하게 성장한 자의 한계였을까.

## 작가의 한계 드러낸 종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런던의 러일전쟁 종군기는 우리에게 유익한 기록이다. 그를 비천한 삶의 수렁에서 건져올린 그 역센 필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당시의 풍경들 때문이다. 조선인들에게 호의적인 매켄지의 글 못지 않게, 그의 글 역시 당시의 시대상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크게 유효한 것이다.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군수품을 운반하던 조선인 짐꾼들, 소속된 일본군부대를 표시하는 조선 짐꾼들 왼쪽 뺨에 칠해졌던 붉은 점이나 보라색 점들, 러시아군대를 쫓아 장거리 행군하던 일본군 보병들이 앓고 있던 발병의 심각함, 일본군들의 군수품과 비상식량들의 종류와 모양, 패전한 러시아 부상병의 모습 등등.

그리고 보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책 런던의 종군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다. 그가 지닌 불행한 편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뛰어난 문인이어서, 그가 러일전쟁의 현장에서 견어올린 수확은 경구의 형태에 담긴 인류의 예지로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과 개 사이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인간에게 민족주의가 있다는 것이다.”(125쪽)

“예전에는 살상이 전과를 결정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살상의 가능성이 전과를 결정하는 것이다.”(161쪽)

고통과 한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과거의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냉소하는 시선을 감당해낼 힘과 여유가 없었다. 아마 삼십년 전쯤만 해도 이런 책은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웃는다.

책 런던이 이 땅을 다녀간 지 백년,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은 지난 일백년간을 그래도 꽤 쓸모있게 보냈다고 자부해도 괜찮겠다.

한울 / A5신 / 256면 / 6000원